

## 2025년 설, 혼란 속 희망 찾는 첫 걸음 되길

계엄·항공기 참사 후 맞는 첫 명절  
경기침체 속 전례없는 경제난 직면  
정치적 불안 탓 시민경제 최악으로  
"IMF·코로나 극복한 국가 저력 믿어"

2024년 말 대한민국에는 불행이 연속으로 찾아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상 최악의 여객기 추락 참사까지 발생했다.

설 명절을 앞둔 2025년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예기치 못한 연이은 대형 악재에 '연말 특수' 실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은 불황의 깊이는 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IMF, 코로나 시대보다 더 하다는 지독한 경기 침체 속에서 맞이한 설 명절. 소비심리는 위축될대로 위축돼 지갑을 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난해 12월 정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회복'이란 표현이 빠진 것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1년여만이다. 호조세로 평가해온 고용에도 부정적 평가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명확해진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3년 10개월 만의 마이너스다. 고환율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졌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1%대를 유지했지만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11월 62.4에서 지



###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

착한소비 착한금융 착한일자리

강기정 광주시장,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 김이강 서구청장과 임택 동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등이 23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행사에서 12·3 계엄과 탄핵 사태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나건호 기자

난달 53.7로 급락했다.

어느 한 곳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지만, 지역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더 떨어질 곳이 없기에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을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23일 만난 광주 상무지구 음식점 업주 강신덕(68)씨는 "힘들지 않을 수가 없다. 서민 경기는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데, 정치가 혼란스러우니 누가 지갑을 열겠나"면서 "이번 설 명절도 큰 특수를 기대하지 않는다. 너무 빨리왔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아져 외식을 안하는 분위기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씨는 '올해는 나아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힘

주어 답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것은 문제가 있던 부분이 고쳐지는 과정이고, 결국은 정치도 민생도 안정될 것"이라면서 "IMF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다. 어렵지만 결국은 이겨냈다"고 밝혔다.

의료계 종사자인 박민경(51)씨는 "의료 대란으로 지난 한해 전국이 몸살을 앓아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2025년에는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지난해는 대책이 없었다면, 적어도 올해는 정치적으로 많은 것이 바뀔 터이니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인들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 전진숙(북구) 의원은 "지난해 국민들은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5·18정신을 가진 광주시

민들의 저력 또한 대단했다"면서 "정치 안정·민생 경제 회복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시민들의 일상이 온전하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군택(광산구갑) 의원 역시 "지난해 국가에 닥친 큰 환란으로 전국민의 걱정과 슬픔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이 흔든 응원봉 등은 환한 빛이 됐다"며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내란의

불씨를 조속히 종식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정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민주주의 회복 없이 경제 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무너진 민주주의는 더 단단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는 더 따뜻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면 광주 경제가 풀려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2025 Happy new year

25일(토)	26일(일)	27일(월)	28일(화)	29일(수)	30일(목)
-0/11	-1/9	2/6	-2/3	-2/4	-2/4

27일~30일자 신문입니다 www.jnilbo.com 서비스는 계속

설 특집 지면안내

달라진 설날의 의미 >7면

설 생활정보 >8면

설 가볼만한 관광지 >9면

설 문화행사 >10면

연휴 여행비 절약 꿀팁 >11면

###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온 도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가 통합하여 하나의 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작년 12월 31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2026년 3월 통합대학 개교를 위해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역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담은 대학통합과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온 전남도민이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정부에서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된 양 대학의 통합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발판이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는 역사적인 통합대학교가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양 대학의 통합은 도민의 30년 염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실현 시킬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은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사명감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지역에서 도민 모두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전라남도는 어려운 대학 재정 여건을 감안해 동·서부 지역에 신설될 대학병원 설립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1도 1국립대학의 선도 모델인 대학 통합과 정부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의대 정원배정을 신속히 이행할 때입니다.

- 전라남도는 도민의 건강권·생명권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학 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완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0만 도민께서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힘을 모아주시요!

전라남도 Jeollanamdo